

## 신장 이식 환자의 만성 C형 간염에서 인터페론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

가톨릭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용균 · 윤혜은 · 김수현 · 최범순 ·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방병기

### Efficacy and Tolerance of Interferon Treatment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Yong Kyun Kim, Hye Eun Yoon, Su Hyun Kim,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Byung Kee B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목적** : 만성 C형 간염은 신장 이식 후 발생하는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환자와 이식신의 생존율을 감소시킨다. 인터페론은 만성 C형 간염의 치료제이나 신장 이식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다. 저자들은 신장 이식 환자의 만성 C형 간염 치료로서 인터페론의 효과 및 안전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 1986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강남 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후 만성 C형 간염이 발생하여 인터페론 치료를 받은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인터페론 치료 전 8명에서 anti-HCV가 양성이고 HCV RNA는 모두 양성이었으며 3개월 이상 혈청 ALT가 정상치의 1.5배 이상이었다. 4명의 환자에서 인터페론 300만 단위 주 3회 피하 주사하였으며 3명의 환자에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600 mg 경구투여를 병용하였으며 2명의 환자에서 pegylated 인터페론을 180 $\mu$ g을 주 1회 피하 주사하였다. 인터페론 치료기간은 4-10개월이었다.

**결과** : 인터페론 투여 종료 시점에서 6명의 (67%) 환자에서 정상 혈청 ALT를 보였으며 5명의 (56%) 환자에서 HCV RNA가 소실되었다. HCV RNA가 소실된 5명의 환자 중 경과 관찰 기간 (26 $\pm$ 21개월) 동안 4명의 환자에서 HCV RNA가 음성이 유지되었다. 1명의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중 경도의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인터페론 치료 중단 후 치료 전 신기능으로 회복하였다. 2명의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중 각각 폐렴과 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터페론 치료를 중단하였다.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병용 투여한 3명의 환자 모두에서 치료 중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여 리바비린 투여 중단 하였으며 인터페론 단독 치료하였다.

**결론** : 감염으로 인한 치료 중단이 2명에서 있었으나 신장 이식 환자의 만성 C형 간염 치료로서 인터페론 치료는 효과적이었으며 비가역적인 이식신기능의 저하 및 거부반응은 없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